



관덕정

2017년 6월 27일(통권 제80호)

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daegusaint@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org>



이 땅에 빛을 | 故김은호(폴리나) 作

관덕정 단청에 관한 고찰 (1)

박 현 수

전 동국대 겸임교수

본 기념관 단청 시공 설계자

I. 들어가는 말

단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찰이나 궁궐, 또는 향교나 서원 등의 전통 건축물에 다양한 색과 문양으로 도채塗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청이 채색된 건물은 그 객관적 이미지가 주로 불교적이거나 유교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건물에 단청이 채색된 예는 거의 드문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순교성지에 건립된 관덕정에는 단청이 화려하게 도채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덕정 단청에 도채된 문양과 색채 속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관덕정 단청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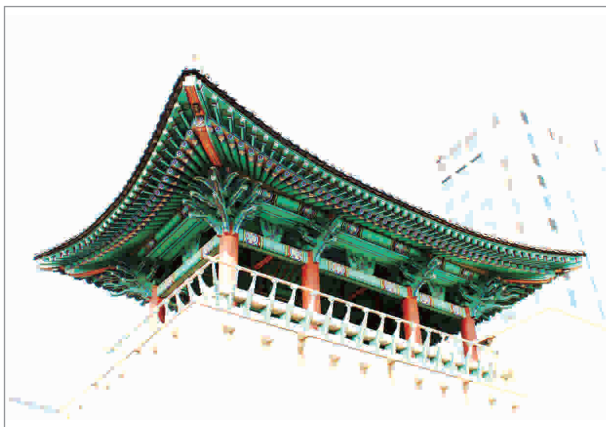
II. 단청의 조건

단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은 첫째, 단청을 할 대상 건물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청은 그 건물의 목적과 용도 그리고 위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둘째, 건축의 구조에 맞는 단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전통건축은 다양한 건축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식에 어울리는 문양과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건축과의 조화로

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이다. 이것은 특히 전통건축에서 추구하는 자연동화 사상에서 발로된 것이지만 현대의 도심에서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은 빼놓을 수 없는 건축적 덕목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가장 원만하고 멋스러운 단청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관덕정의 건축적 구조와 성격

관덕정은 조선시대 무과의 시험 제도의 하나인 도시都試를 행하던 도시청都試廳으로 조선 영조 25년에 세운 건물로 옛 이름은 관덕당이었다. 관덕당은 누각과 넓은 마당이 있어 군사 조련이나 여



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장으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이곳에서 사형 집행도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관덕당에서는 1815년 을해박해 때 7명이 순교했으며, 1827년 정해박해 때 3명, 1866년 병인박해 때 이윤일 요한 성인을 비롯하여 7명이 순교했다. 이러한 순교자의 순교 정신을 함양하고 신자들의 신앙 재교육과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념관으로 건립한 것이 바로 관덕정순교기념관이다.

관덕정의 건축구조는 전통양식인 주심포 양식(기둥 위에만 포가 짜여 진

형식)의 구조이지만 재료는 목재가 아닌 콘크리트로 축조되었으며 지붕은 웅장한 팔작지붕이며 부연이 있는 겹처마로 누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누각(루) 형식은 공간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구조로 기둥과 지붕, 바닥만이 있을 뿐 벽과 문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사방으로 트여 건축물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실이 아닌 바닥과 지붕으로 한정된 트인 공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선, 바람이 건축물이 없던 이전처럼 통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둥과 지붕이 스크린 작용까지 해 경관에 대한 미감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루樓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건축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인의 소박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IV. 관덕정의 단청문양

1. 십자가(Cross) : 십자가는 크게 라틴식과 그리스식으로 대별하며 세부적으로 영광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베드로 십자가, 교황 십자가, 주교 십자가 등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라틴식은 십자가의 횡단보다 종단이 더 길고 그



리스식은 횡과 종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특징이다. 관덕정에 도채된 십자가 문양은 그리스식의 십자가에 원의 형태를 두른 문양이다. 이러한 십자가의 형태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지방에 살던 켈트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것으로 둥근 원은 영원, 완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문양은 영원, 구원, 사랑, 영광을 상징한다.

2. 초 : 초는 빛을 상징하며 예수, 세상의 빛, 강생의 신비를 상징한다. 초의 왁스는 예수의 인간성을,



초의 심지는 예수의 영혼을, 초의 불꽃은 예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문양은 전통적인 물결 문양에 촛불을 세운 것으로 인류의 길을 인도하는 구원적 등대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3. 비둘기 : 비둘기는 성경에서 티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양순함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날짐승이면서 유일하게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왔다. 또한 성령을 상징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비둘기를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은총을 상징하기도 한다. 비둘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강림을 의미하며 견진 성사에 많이 사용하는 문양이다. 머리 부분에 원을 두르면 성령을 상징하며, 세 가지 빛의 모양을 머리 부분에 표시하면 성령의 신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 문양은 비둘기 머리에 두광을 두르고 몸 전체에서 뻗어 나오는 서기瑞氣를 전통적인 오방색으로 표현하여 성령의 위엄과 은총을 표현하였다.

(계속)

민들레는 피는데 그대는 떠나고

- 故최호철 안토니오 신부님을 기리며 -

한 명 수(미카엘)

기획위원 · 시인 · 문학평론가

그날, 들레들레 민들레는 피는데 그대는 떠나고
봄바람 걸어오는 남산언덕 관덕정
누각의 처마들 대문의 문고리도 침묵했다.
열두 계단 올라 십자성호 굶고 나면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를 반기던 그대
심어놓은 작은 나무들 꽃잎들 사이로
햇살과 빗살이 그리움처럼 나리우고
그대 숨결 어린 꽃은 저리도 싱싱하게 피어오르는데
관덕정 검은 지붕에도 노랑나비는 날으는데
먹먹한 우리 가슴 속 그대 얼굴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대는 가고 민들레 씨앗들은
우리 췌전의 그대 말쑥처럼 번져 가는데

꽃송이 하나에 가슴 저려 고개 숙이기도 하고
 꽃송이 하나에 하늘만 쳐다보고 눈감기도 하고...
 아, 그대, 이 침묵 속을 흐르는
 관덕정 사람들의 방언들이 그대에게 전해지는가.
 함께 길을 가면 언제나 뒤돌아보고
 처진 이가 없는지 살피던 그 눈길 그 손길
 관덕정 앞 보도블록 곳곳에
 성지순례의 길 곳곳에 당신의 숨길처럼 스미었는데,
 어둔 밤, 달빛 고고한 시간 홀로
 불 처진 관덕정 한 천 기도의 방에선
 순교자의 향이 그대 손끝에서 피어났는데,
 험란한 말보다 깊은 걸음 한 걸음으로
 더 위안을 주던 그대 묵직한 신뢰,
 시간은 계절을 타고 이곳으로 오는데,
 언질이라도 주게, 어찌, 가노라는 말도 없이 왔는가.

저 꽃잎이 그대 얼굴인가
 저 바람이 그대 걸음인가,
 흐르는 눈물을 이기려 고개 들면
 먼 데서부터 다가오는 꽃잎 바람 한 줄기
 스치우는 향기가 무척도 낮익다.

꽃잎 이슬 같은 관덕정 사람들 가슴 속으로 떠난
 그대 빛나는 열정 아름다운 고통
 다시 부활의 그날, 남산동 언덕배기 꽃바람이 불고
 민들레 노란 꽃잎 안에 당신이 피어나면
 그대, 부활의 꽃으로 만나리라.
 민들레는 피는데 당신은 떠나고
 우리는 여기서 그날을 기다린다.



몸!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진 선물

(레아 페로 지음 · 손호빈 옮김 / 바오로딸 2017)

“몸이 굵은 한 늙은 남자가 주름진 손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계단 난간을 잡으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삶의 목적과 품위로 가득찬 느낌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교황이 아니라 그저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쇠약하지만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노인이 애써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등 그 몸은 그의 명언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살과 피로, 연민 가득한 눈과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다시 말해 교황과 순례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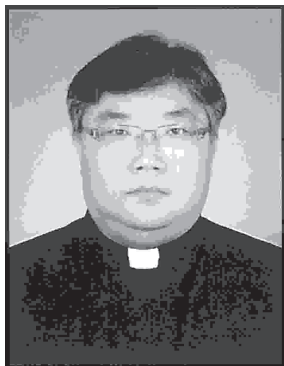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가톨릭 사목 운동을 하던 저자 레아 페로가 몸의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정황을 이렇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몸은 선물입니다」는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체험서입니다. 몸은 각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신비를 외적으로 드러내 주는 영혼의 표현임을 알려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곱고 품위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집까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정갈한 삶의 자리를 보고 온 그 날 이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몸의 신비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아빠와 엄마를 거슬러 가족의 흔적까지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응답까지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느님 사랑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실망하고 사랑하며 당신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프러포즈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에 기쁘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옮긴 손호빈 신부님의 초대입니다. 실제로 책의 2부에선 몸의 신학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응답하고 싶다는 뜨거움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매력은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구체적인 질문이 마련되어 있어 스스로에게 또는 친구, 가족, 공동체와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은 거울을 보며 내 몸을 돌보고 싶은 날 한 주제씩 꺼내 읽으면 나만의 아름다운 비법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설렘을 줍니다.



故최호철(안토니오) 신부님

■ 최호철(안토니오) 신부님 선종

지난 5월 2일(화) 관장 최호철(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심장마비로 선종하셨다. 장례미사는 5월 4일(목) 계산성당에서 있었고 장지는 군위 묘원이다. 신부님은 지난 2014년 8월 관덕정순교기념관에 부임해 11대 관장으로 사목하셨다.

■ 국내성지순례

4월 30일(일) 대전교구 진산성지와 전주교구 나바위성당을 44명이 순례하였고 5월 21일(일)에는 43명의 순례객이 서울대교구 절두산순교성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당고개순교성지에서 주일미사에 참여했다. 6월 18일(일)에는 대전교구 청양다락골성지를 42명이 순례했다.



당고개순교성지



나바위성당

■ 교회사 강좌



나경환(시몬) 신부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심을 결코 잊지 말고 한국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신심을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자고 하셨다.

5월 13일(토)에는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김정환(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강의해주셨다. 신유박해 때 전라도, 충청도에서 박해를 피해 유입되어 온 신자들이 10여 년간 경상도에서 살다가 을해박해를 만나 순교하신 분들이 바로 대구의 순교자들이라고 정리 해주시면서 대구 복자들의 순교 사실을 말씀해주셨다.



김정환(세례자 요한) 신부님

■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6월 3일(토) 오후 5시에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가 봉헌되었다. 베네딕토회 박대중(디오니시오) 신부님의 주례로 성음악연구회(Cantate Domino Canticum Novum) 회원들이 함께 했다. 성령강림 대축일 낮 미사로 봉헌된 미사에서 박대중 신부님은 강론을 통해 성령의 강림 하심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다. 라틴어 기도문을 그레고리오 성가로 봉헌하는 이 미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고 불평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부터 2017년 6월 23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강대수	故강점태	故곽순금	故김경준	故김교익	故김순자	故김순종	故김신웅
故김용희	故김관휘	故김 희	故박노선	故박무순	故박삼웅	故박상백	故박성웅
故박수동	故박오조	故박정웅	故박팔암	故배남이	故배상이	故유달년	故유덕순
故유순임	故윤선이	故윤진돈	故이규석	故이목노	故이성안	故이안나	故이원녀
故이윤식	故이을룡	故이현석	故전두향	故정안나	故정우상	故정재식	故조수웅
故채인숙	故최금주	故최삼주	故최재환	故최정환	故최중량	故최호철신부	故추교운
故하태조	故한형우	故홍광식	故홍순복	故홍영준	故호세 델라빠나		
김계정	김광자	김소조	김수자	김순애	박복선	박선녀	박성옥
박일출	박창환	복진수	복찬원	엄옥향	이국지	이동수	이복순
이선화	이순례	이옥화	이인숙	이준순	전용순	전정자	정승은
정호식	채육균	한석재	한지형	현조자			

가족 회원

강희택가족	권오분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민석 가족	김민희가족
김성길가족	김영선가족	김영숙가족	김일성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헌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향숙가족	김현준가족
노인자가족	도영희가족	류진춘가족	마윤현가족	문정숙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보현가족	박용철가족	박용택가족
박윤희가족	박장원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준범가족	박준철가족	박화수가족
배병훈가족	백덕흠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서영희가족	손종구가족	손춘자가족	신수영가족	신연식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오연숙가족	우종수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종문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경옥가족	이성희가족	이수자 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임완순가족	전남숙 가족	전순자가족
정계희가족	정명숙가족	정병선가족	정영수가족	정일상가족	정화숙가족

조경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상국가족 조영학가족 주재열가족 주재중가족
최선미가족 최성구가족 최인조가족 최주영가족 허영순가족 홍태숙가족
황서연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강성화 구이분 김덕순 김분이 김성민 김영진 김재화 김점수 김정섭 김정자
김지혜 박경주 박단이 성경훈 성진현 송순자 신경숙 신동선 유옥자 이경자
이경희 이명숙 이윤홍 이재분 이정호 이종섭 임수현 임운자 임화자 전화선
정영애 제현희 차이선 채태수 최은경 한분자 황영엽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주일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